외국인노동자 '불심 만개'

석왕사 초파일 '문화마당' 1천여명 동참

"부처님 품에서 향수달래요"

북돕기 모금행사에도 자비손길

"한국에서 생활하며 가장 힘든 점이 외로움입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오랫만에 친구들도 만나고, 서로의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어 기쁩니다. 고국의 부처님오신날을 생각하며 예불 올리고 축제에도 참석했습니다."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여 마련한 '외국인노동자 문화 한마당'이 열렸던 11일 오후, 부천 석왕사(주지 영담) 앞마당에는 미얀마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네팔 등지에서 온 외국인노동자 1천여명이 모처럼 고향이야기로 얘기꽃을 피우고 있다.

11일 연등법회에도 네팔불자모임 회원 60여명이 참여, 제등행렬에서 시종 진지한 표정으로 불교기와 네팔기를 흔들며 동참해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다.

이처럼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외국인노동자의 동참과 기쁨이 더욱 확산됐다. 특히 외국인노동자들에게 불교계도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곳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노동자들은 북한동포돕기에도 정성을 보탰다. 석왕사 문화 한마당 행사장에는 외국인노동자들이 직접 준비한 북한동포돕기 모금함이 비치돼 있었다. 안내문과 함께 마련된 모금함에는 하루종일 외국인노동자들의 손길이 끊이지 않았다.

이날 석왕사 문화 한마당의 절정은 공장에서 일을 하는 외국인노동자들과 그들을 괴롭히는 한국인 고용주의 부당행위를 묘사한 연극공연 '누가 잘못했습니까?'.

연극의 대본을 쓴 미얀마의 얀나이 륭(27·인천 남동공단 4년 근무)씨는 "단지 한국인이 아니라는 이유 하나로 무시당하고 일을 더 많이 해야하는 외국인의 고충을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각 나라별로 민속의상을 선보이고 민속춤 공연을 지켜보며 향수를 달래는 외국인노동자들의 표정은 부처님의 품안에서 불법체류의 긴장감도 잠시 잊은 듯 한결 느긋해 보였다.

3년전 부터 외국인노동자들에게 관심을 쏟고 있는 영담스님은 "외국인노동자들이 몰라서 당하는 불이익을 해결해주고 어려움을 이해하는 것 부터가 외국인 포교와 세계일화운동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은 기자〉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첫 행사로 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원법회.

"땀흘리는 이에 지혜와 행복을"

봉축위 '나라위한법회' 사부대중 1천여명 참석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원법회가 9일 서울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1천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월주)가 주최하고 조계종중앙신도회(회장 송재건)가 주관, 기원법회와 만찬 축하공연으로 진행된 이날 법회에는 원로의원 석주스님을 비롯 직할사암 주지와 교계 주요신행단체장, 고건 국무총리, 송태호 문체부장관, 이회창 김대중 김종필씨 등 3당대표, 이한동 이수성 박철언씨 등 각 정당 불자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설정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장)은 기원문을 통해 "외롭고 가난한 사람, 병들고 고난에 지친 형제와 풍요와 평화를 가꾸기 위하여 땀흘려 일하는 지도자와 국민들에게 지혜와 용기와 행복을 주옵소서"라고 기원했다.

이날 법회에서 조계종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이웃의 고통에 대해 진심으로 연민의 마음을 일으키고 사랑의 손길을 베풀 때에 개인의 행복도 완성될 수 있다"며 이타행의 실천을 당부했다.

초파일 모범수 354명 석방

법무부는 13일 석가탄신일을 맞아 재범우려가 없고 행형성적이 우수한 모범수형자 3백12명과 보호감호자 42명등 3백54명을 석방했다.

이날 석방된 대상은 월례가석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무기수 3인과 형기 3년이상의 장기수 38명, 각종기능자격취득자, 검정고시 합격자, 기능대회 입상자등이다.

◇외국인노동자 문화한마당에서 미얀마의 모에모에 륜씨가 민속의상을 입고나와 민속춤을 추고있다.

제2 석굴암 조성 추진

불국사, 훼손방지위해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인 석굴암을 영구보존하기 위한 제2의 석굴암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불국사(주지 설조)는 9일 "경주 토함산에 있는 석굴암이 61년 보수공사 이후 균열과 누수현상이 상당히 진행된 데다가 관람객들의 체온과 입김 등으로 훼손이 가속돼 이를 막기 위해 제2석굴암 조성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문화재관리국측은 "석굴암의 원형보존과 관람객들의 욕구 충족에 일조할 것"이라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불국사측은 "새로 조성되는 제2의 석굴암은 원래의 석굴암 구조 및 형태를 똑같이 해 불국사 경내나 석굴암 인근에다 설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불국사측은 문화재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 위문품보내기

종단·불자 '무관심'

조계종 봉축위원회(위원장 월주)와 군불교진흥회(회장 박상길)가 추진한 군장병불자 위문품 보내기운동이 종단과 불자들의 무관심으로 지난해 보다 낮은 호응도를 보였다.

군불교진흥회는 13일 "3월10일부터 봉축기념 위문품 보내기 운동을 전개한 결과 3천4백40만원의 성금을 접수, 1만7천2백개의 위문품을 육·해·공군에 배분했다"고 밝혔다.

육군은 1군에 3천개, 3군에 4천개, 논산훈련소에 3천5백개, 기타 사단에 2천2백개가 전달됐으며 해군본부에는 1천개, 해군 제2함대에 1천5백개, 공수특전사에 1천개씩의 위문품이 각각 전달됐다. 이밖에 월주 조계종 총무원장스님이 해군 2함대에 5백20만원의 성금을, 박상길 군불교진흥회장이 육군 1사단에 3백30만원을 전달했다.

이하전 군불교진흥회 사무국장은 "지난해 처음 시작한 위문품 보내기 운동을 통해 2만여 불자장병에게 봉축의 기쁨을 선사해 큰 호응을 얻었으나 올해 성과가 저조해 안타깝다"며 군포교에 대한 불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현불뉴스

조계종 본사주지모임 결성

조계종 본사주지들이 친목을·도모하며 종단발전을 논의하는 모임을 결성했다. 법주 마곡 수덕 직지 동화 은해 불국 쌍계 통도 백양 대흥 선운사 등 12개 본사가 참여하고 있는 본사주지모임(회장 설조·불국사주지)이 3일 수덕사에서 발의된데 이어 16일 공식적인 첫 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종정사퇴 불교방송 문제 선본사 문제 등에 대한 본사주지들의 의견이 개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故 진제당 도원스님 49재

원로의원 故 진제당 도원대종사 49재 및 사리친견법회가 31일 오전 11시 고운사에서 봉행된다. 4월 13일 열반한 도원스님의 정골사리는 수습 이튿날 2과가 불어나는 이적을 보여 총 24과가 되었으며 연골사리는 8과가 출현했다.

부산 '화지문화회관' 개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월주스님)은 20일 부산 양정1동 화지공원내에 부지 6만5천평 연건평 1천36평의 청소년수련실 '화지문화회관'을 개관했다.

이 회관은 부적응 아동 가족상담, 비행 소외청소년을 상담지도하고 무료예식 경조사모임 공공행사 대관등으로 시설을 활용할 계획이다.

화지문화회관 청소년수련실은 동래정씨 문중에서 설립하여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위탁운영을 요청해 3일 부산시의 설치운영허가를 받아 개관하게 됐다.

부·경불교 언론인협 창립

부산·경남지역 불교언론인들의 모임인 부산·경남불교언론인협의회(준비위원장 이영구 불교부산방송 총괄국장) 창립총회가 21일 오후 7시 부산 코모도호텔 희락정에서 열린다.

전·노씨 석방 서명전개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중앙승가대학생회가 전두환 노태우 前대통령의 사면석방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 승가대 임직원을 비롯 1천여명이 동참했다.

동화사에서도 전씨 측근의 요청으로 12~15일 서명운동에 6백명이 동참했다.

장애인 북한산 등반대회

복지법인 승가원(이사장 지하스님)과 성북구(구청장 진영호)가 주최한 장애인 등반대회가 3백여명의 장애인 및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1일 북한산 국립공원 깔딱고개에서 열렸다.

보현사 연꽃노인잔치

보현사(주지 일관)는 20일 오전 11시 중계4동 삿갓봉공원에서 회주 일면스님(광동학원이사장)등 사부대중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4회 연꽃노인잔치를 개최했다.

'북돕기 1백일 결사' 20일 결제

북돕기불교추진위

북녘동포돕기 불교추진위원회(상임집행위원장 효림)는 20일 오전11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북녘동포돕기 1백일 결사법회 결제식을 개최하고 차량스티커를 배포했다.

불교추진위는 하안거 기간인 21일부터 8월 17일까지 1백일 결사기간으로 설정하고 전국 각 사암연합회 및 지역불교단체와 사찰 등을 조직화, 1백일동안 법회를 이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각 사찰별로 현재 봉행하고 있는 초하루, 관음재일 법회 등을 북녘동포를 돕기위한 법회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청소년단체 여름캠프일정 확정

파라미타 8월8일~11일 고성

청교련 7월31일~8월6일 제주

불교청소년계의 쌍두마차 (사)파라미타 청소년협회(총재 성타)와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회장 현성)의 여름캠프 일정이 최종 확정됐다.

파라미타는 '맑은 세상, 청소년 세상, 부처님 세상'을 주제로 8월8일부터 11일까지 강원도 고성 세계 잼버리수련장에서 '제2회 파라미타 연합캠프'를 개최한다.

6월20일 접수 마감되는 파라미타 캠프는 3천명의 청소년불자와 5백여명의 인솔지도자, 진행지도자, 지원요원들이 참가해 지난해에 이어 교계 최대규모로 펼쳐진다. 또한 삼천불탑만들기, 화엄사 순례 및 생태계 연구, 노래가사 바꾸기, 모험활동, 불꽃축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의 재미와 모험심을 자극한다. 02)723-6165

올해를 '국제 청소년 교류의 해'로 정한 청교련은 7월31일부터 8월6일까지 제주도 김녕 해수욕장에서 '국제청소년캠프'를 마련한다.

우리나라를 비롯 일본 미국 캐나다 독일 등 13개국 청소년 5백여명이 참여하는 국제청소년캠프에는 선체조 및 명상수련을 비롯 보트타기, 모형배 만들기, 동굴탐사 등 흥미진진한 프로그램이 다양하다.

또 제주도 사찰 및 시내 관광도 겸한다. 접수마감은 6월10일까지. (02)735-8165

'벙어리 함성전' 수익금 북동포돕기에 기탁

서울대학교 미술대 학생 30여명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14일부터 20일 21세기화랑에서 북한동포돕기 기금마련을 위한 작품전시회 '벙어리 함성전'을 개최하고 판매수익금 전액을 우리민족서로돕기불교운동본부에 기탁했다.

목탁소리

동아시아대회와 포교

천 미 회 〈부산주재 기자〉

부처님오신날 부산지역의 봉축행사는 제2회 동아시아 경기대회와 맞물려 특히 주목받았다. 동아시아인이 함께하는 축제가 되도록한다는 취지여서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관심을 모았던 것이다.

부산불교봉축위원회측은 동아시아 경기대회 참가선수단을 각종 봉축행사에 동참토록해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로 그들을 감화하는 인연의 자리로 만들고자 불교관련 안내책자 배포 통역요원 배치등의 구체적인 준비를 하였다.

일정이 다가오면서 어떤 사정으로 인해선지 안내책자에서 전단으로 바뀐 포교전단은 봉축행사일정 부처님 탄생과 그 가르침 우리나라 연등제의 유래등을 상세히 담아 영어 일어 중국어로 9천부가 제작되어 선수단이 묵고있는 호텔에 배포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그 포교전단이 비치되어야 할 선수단 숙소측은 그런 전단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고 14일 현재 전단이 비치되어 있지 않았다. 방법상의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다. 전단이 배포된지 일주일도 채안된 부처님오신날까지 대회가 진행되고 있고 분명히 배포되었다는 전단이 선수단 숙소 어느곳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당초의 기획의도에 비춰 동아시아인이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속에서 감화되도록 한다는 뜻은 추진방법이나 진행상에서 빛이 바래졌다는 아쉬움을 떨칠수 없다. 그리고 2002년에 열릴 월드컵 대회에 우리가 어떻게 한국불교를 보여줄 수 있을까 막연하나마 우려가 됐다. 부처님 법을 전하는 것에는 왕도가 없는 것이나 특히 외국인 포교에는 가시밭길을 헤치듯 보다 치밀하고 내실있는 준비가 요구된다.

"佛塔다라니로서 스님과 불자들이 실제 겪었던 영험 사례집 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불탑다라니를 사용하면 실제로 불가사의한 영험력이 일어나는 것일까?"

돌아가신 분들에게 깔아주고 덮어주어 극락왕생을 기원했던 금강경 탑다라니. 이 불탑다라니를 현세에서 우리가 사용한다면?
살아있는 동안에 극락을 찾고 소원을 성취하고 일체재해를 멸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여러스님들이 방편으로 시도해보았던 불탑다라니에서,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스럽고 불가사의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은 무엇으로 설명을 할 것인가?
이세상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럼으로 이러한 불가사의한 일들은 규명하고자 하기보다는 한가닥 의심없이 믿고 행함으로서 실제로 체험 해보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을 진실로 믿거나 불보살님의 위신력을 믿는 불자라면, 부처님의 위대한 경전을 100% 경면주사를 사용하여 조성한 금강경 신탑다라니와 묘법연화경 다보탑다라니, 지장보살본원경 사경본의 위신력을 충분히 믿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동안 2000여 사암에서 주로 스님들을 통하여 불자들에게 보급되어온 본회의 불탑다라니는 사용한 불자들의 대부분이 한결같이 그 불가사의하고도 신비스러운 영험력을 직접체험 하였다고 스님들이 전해옴으로서, 본회에서는 그 사례들 중에서 대략적인 것만 모아 책자를 만들어 인연닿는 스님과 불자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신비의 불탑다라니와 지장보살 본원경"

■고급 택색공단 천 위에 100% 순수 양질의 경면주사만 사용하여 조성
규격 : (가로)63㎝×(세로) 160㎝

스님들께는 :스님용책자와 신도용책자를 무료로 함께 보내드립니다.

스님용책자내용
1. 본회의 금강경 신탑다라니에서 계속적으로 방출된 신비스러운 기를 이용하여 인간의 운세와 길흉화복을 80%이상 적중시킬수 있는 기(氣)테스트 방법 수록.
2. 불가사의한 영험력이 일어나 소원이 성취되는 불탑다라니 사용방법과 상세한 처방전.
3. 지장경 사경본을 이용한 조상대대 친족연족 일체지영가 천도방법.
4. 수자영가를 각각 불명을 지어 확실하게 천도시켜 주는 방법.
5. 불탑다라니로서 조상님의 산소를 후손이 발복하는 명당자리로 만들어 주는 방법.
6. 이름없는 영가의 불명짓는 방법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 불탑다라니는 포교차원에서 신도들에게 부처님의 위신력을 보여주어 불심을 깊게하는데 일조하고, 소원을 성취시키고, 재앙과 재난을 예견하여 그것을 피해가고 소멸시켜주는 방편으로, 또한 조상령과 수자영가인 낙태아, 자연유산아 사산아등의 원혼들을 불명을 지어 위패를 안치시켜주므로서 확실하게 천도시켜 주는 방법등을 제시해드림으로서 다소나마 불사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주었으면 하는 뜻입니다.

불자님들께 : 불탑다라니를 사용하여 실제로 일어난 영험록 사례집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1.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는 분
2. 대학입시생을 둔 학부모.
3. 각종질병이나 원인모를 병으로 고통받는 분.
4. 정신질환이 있는 분.
5. 사업이 부진하거나 실패한 분.
6. 가정불화를 겪고 있는 분.
7. 삼재나 관재가 있는 분.
8. 집안이 이상하게 시끄럽거나 잘안풀리는 분
9. 고시나 승진시험을 앞 둔 분들은 꼭 받아보십시오.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0335)34-9490, 34-9491
야간 (0342)706-3060

난치병 치료

수백년 비전된 한방 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하고 있는고봉선생은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후 3년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천식, 신경성위장병, 심부전증, 관절염, 백혈병등 에 탁월한 효과

※ 당뇨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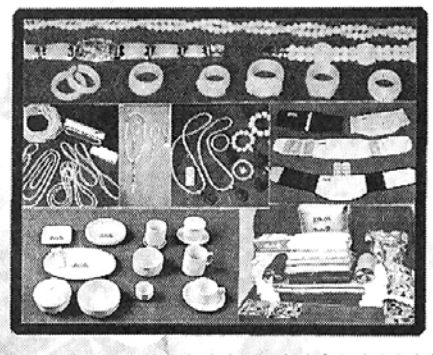
■ 진료 : 매주 목요일, 일요일

▲ 주변에 병고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요?
▲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실패 한 분께 권해드립니다.

전화문의 : (053)628-9145
(053)655-3027

대구여래한방

춘천옥산가옥의 신비!



전강에 가장 중요한 물질인 뇌내 모르핀 분비를 활성화시켜 모든 병을 호전시킵니다.

氣(기)는 생명력, 강한 기를 당신에게!
짜릿짜릿한 느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 내몸-부처님도량, 이 가람을 청정하게 가꿉시다 (SOD. 청혈작용 때문에)
★ 혈액순환을 도와 모든 성인병의 근원을 제거한다. (체내노폐물 제거 때문에)
★ 현대인의 불안, 초조, 신경질, 찾병 또는 노화방지에… (뇌내 모르핀 활성화 때문에)
★ 장타력, 집중력, 골프머리가 잘히 깁니다. (조금의 차이도 1타를 이깁니다)

꾸준히 사용해 보십시오. 참으로 잘 듣습니다.

북경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중국내 난치병 환자를 상대로 임상실험 결과 불면증96.9%, 심장질환자 92.9%, 귀울림병91.3%, 어지러움증91.3%, 두통83.3%, 고혈압77.8%, 관절염60%의 놀라운 치유 효과를 기록했다.('93. 2. 17 서울신문)

玉山家 옥만을 찍찜어서 시아만 효과가 있습니다.

玉도자기 玉이불 金貫 수상
미국 제10회 국제발명품전시박람회

옥산가 옥이 의약품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의서 本草綱目에 건옥은 백병을 다스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쁘렝땅 백화점 지하상가 입구)
玉山家 777-0105 (우편판매)